

NEWS 

## 중소기업 추석자금 특별 지원 - 기업은행

기업은행(www.kiupbank.co.kr)은 자금수요가 많은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의 임금 및 결제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추석특별자금'을 8월 30일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애로 기업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용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동일인당 3억원 이내에서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토록 하였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방식은 원화대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중 고객이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5~7%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실적방식에 의한 'Network Loan'의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문의처 : 기업고객부 고영수 팀장 729 - 7378  
(자료 : 기업은행 문화홍보실)

## 삼성전자 협력업체 자금지원 - 기업은행

삼성전자(주)(www.sec.co.kr)와 기업은행(www.kiupbank.co.kr)은 지난 8월 26일 기업은행에서 '삼성전자 Network Loan'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주)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우수협력기업이 삼성전자(주)에 대한 납품실적만으로도 원자재구매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먼저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주) 및 기업은행 관계자는 삼성전자 'Network Loan' 제도 시행으로 삼성전자(주)의 1천5백여 중소협력기업이 삼성전자(주)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Network Loan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대기업과도 협약 체결을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통해 先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 기업고객부 고영수 팀장 729 - 7378 기업은행  
문의전화 : 삼성전자(주) 자금팀 박재형 부장 727 - 7504  
(자료 : 기업은행 문화홍보실)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www.smba.go.kr)은 7개 공공기관이 구매해온 32개 품목의 국산화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13일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철도청·국방품질관리소·소방방재청·대한석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곳에서 항공기용 점화플러그, 지능형 전원제어기 등 32개 과제를 제시했다.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최고 2억원(전체 개발비의 75% 이내)까지 모두 24억5,000만원이 지원되며,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기관이 2년 이상 구매해준다.

사업참여 신청은 각 수요기관으로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중소기업청)

## 긴급추석자금 3,000억원 공급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www.kdb.co.kr)은 9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게 3,000억원 규모의 긴급추석자금을 공급한다.

산은은 먼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추석자금을 신규 조성하여 거래기업당 20억원 한도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9월에 만기도래하는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상환을 6개월간 연장한다고 말했다.

산은은 또 최근 콜금리인하(0.25%p)에 부응하여 거래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산은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금리연동 원화대출의 기준금리를 0.3%p 인하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자금수요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본부장 또는 영업점장이 약식심사를 통해 전결처리함으로써 적시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이번 자금 공급에 대해 원자재 및 원유가 폭등, 구매조건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긴급추석자금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은 김종배 이사는 “이러한 긴급추석자금 공급과 금리인하 조치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김동춘 팀장 (☎787-6121)  
(자료 : 한국산업은행)

## 지방중소기업 저리자금 1천억 지원 -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지난 13일 경기 회복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에 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 대출금리는 일반 원화대출에 비해 0.5%포인트 낮고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기업이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도 주력 사업장이 지방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 기업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약식 심사를 통해 시설복구 자금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만기 연장,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 : 산업은행)

## NEWS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고 1.2%포인트 인하하고 자금공급규모도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기업은 유가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이다.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를 당초 2조4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2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을 작년말 75%에서 올해말에는 8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출금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당초 목표였던 22%에서 23%대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출능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신용도는 낮지만 수출대금 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을 해 줄 방침이다.

(자료 : 수출입은행)

##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기업 지원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은 미래 수출동력 확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편중 현상 개선 및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선정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우대보증부문 대상기업으로 정하고,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0억원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3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우량기업(신용등급 BB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신용등급별 요율에서 0.2%p를 더 차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주기로 하였다.

신보 관계자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미래의 수출주력기업 임을 감안해 보증신청시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은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2004. 7월말 현재 선정기업은 총 452개사이다. 현재 차세대 일류상품 생산기업은 선정 후 3년 이후부터 매년 해당여부를 재검토하여 명단에 반영하고 있다.

문의처 : 홍보팀 김충배 차장( 710-4414 ) 신용보증부 왕성철 차장  
(자료 : 신용보증기금)